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일시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시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청년참여연대

프로그램

19:00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9:10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9:30발제	**지속가능한 청년 주체형성, 참여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19:50 지정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20:20 종합토론	
21:00 폐회	

목차

발제1 지속가능한 청년 주체형성, 참여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강준원 04
토론1 “우리가 말한다고 되겠어?” / 송효원 11
토론2 청년의 시선으로 시작하는 주거운동 / 정남진 16
토론3 ‘청년유니온 운동’ 5년, 의미와 과제 / 정준영 20

발제 1

지속가능한 청년 주체형성, 참여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강준원 /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Ⅰ. 들어가며

1. IMF 이후의 청년문제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유례없는 국가위기에 처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IMF지원을 대가로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재 당면한 청년문제의 상당수도 여기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며 이제는 정규직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은 과거의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며 취업소개소로 전락되어 버린 지 오래고, 청년들은 기업의 요구에 발맞춰 스펙 쌓기에 '올인'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학입학부터 취업준비와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다보니 청년들이 동아리, 학생회 등 자치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었고 학생운동으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활동도 함께 쇠퇴함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지위도 함께 하락했다. 극심한 취업난, 비정규직 확대는 청년의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는 점차 사회에서 줄어들게 되었다. 저출산국가, 청년 체감 실업률

22%(공식실업률 9.7%),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 1위라는 통계에서 나타나듯 2015년 대한민국의 청년은 불행하기만 하다.

2. 참여연대 청년을 고민하다

20년 전 참여연대가 창립할 당시 청년은 참여연대의 한 축이었다.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청년그룹과 진보적인 전문가들의 만남이 지금의 참여연대를 만들었다. 참여연대 그 자체가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때 386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기도 했던 청년들의 모습은 10년 만에 경제위기와 사회모순 속에서 그 위상과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참여연대의 회원분포에서도 나타나듯 청년들의 참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한 때 청년들의 조직이었던 참여연대도 이제 중년, 장년으로 접어드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체회원대비 20대 회원 비율 4.6%, 30대 회원 비율 21%. 출처:「2014 참여연대 제20차정기총회」자료집)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운동을 포함하여 청년실업·청년복지·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꾸준히 힘써왔다.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청년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청년연수·인턴프로그램 등 교육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까지 500여 명의 다양한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양성하였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의식을 향상시키고 활동력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참여연대 내부의 문제의식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회보좌관, 기자 등 시민사회영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2세대 활동가를 재생산하는 역할도 일정 정도 수행했던 것이다.

이에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청년세대의 사회적인 지위과 역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참여연대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었고 종합적인 청년운동을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꾸는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강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총회에서 청년참여 활동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승인 받았다. 그리고 올해 청년/캠퍼스 문제 등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청년 당사자 조직인 '청년참여연대'를 창립하면서 본격적인 청년문제해결에 뛰어들었다.

3. 참여연대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가

물론 그 길과 고민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이기도 했고 뒤늦게 뛰어드는 의제인 만큼 기대만큼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 특히 참여연대의 운동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가라는 고민이 컸다. 작년 참여연대가 20살을 맞아 이제 청년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지만 대변형 운동과 전문가 운동의 성장은 오히려 청년들의 참여를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늘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참여연대는 <청연>이라는 참여연대 청년회원들의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2013.11~2014.08)했었고 <스케치북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좀 더 가볍게 하나의 프로젝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014.09~2015.01). 이렇게 쌓인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와 내부 토론을 통해 청년사업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취해왔던 대변형 방식이 아닌 청년들을 직접 조직해서 움직이게 하는 당사자 운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2015년 2월 청년참여연대 창립에 대한 총회 인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립 준비가 시작되었다. 창립까지의 과정은 기획단 → 준비위원회 → 창립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특히 본격적인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부터 그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로 그 시작을 열었다.

Ⅱ. 지속가능한 청년운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속가능성은 청년참여연대가 내건 다섯 가지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이는 청년참여연대의 비전인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에도 등장한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함이란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요구이며 청년참여연대에서도 비중 있게 생각하는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청년운동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자발적 참여를 만들 수 있는 구조

첫 번째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구조이다. 청년운동은 운동의 주체가 그 어떤 운동보다도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더 많은 주체를 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주체의 재생산이 끊겼을 때는 그 무엇보다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즉 이러한 주체의 빠른 변화와 이동은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됐을 때에만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청년들은 바쁘다. 참여할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부족하다. 무엇으로 자발성을 이끌어낼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보통 물건의 가격과 품질, 그리고 자신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한다. 소비자를 잠재적 '참여자'로, 참여를 '구매'로, 가격과 품질을 '참여 동기'로, 그리고 구매력을 '참여자의 여건'으로 가정해 보자. 먼저 '잠재적 참여자의 여건'에 대해 말해보겠다. 청년은 여유가 없다. 매주 한 번, 오프라인 모임 갖는 것조차 힘들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해보았다. 구매력을 높여보자. 참여의 의미를 행동, 실천에만 두지 말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부터 열어두면 어떨까?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을 통해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다. 구글 문서도구(google docs)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업무공유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이들의 구매력, 참여 여건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피드백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행동, 실천적 참여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참여 동기를 자극해야 한다. 참여할 수 있다는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미 기획된 캠페인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하고 싶은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대해서 주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의제가 담길 수 있도록 <청년과 경제>, <청년과 정치>, <청년과 대학>, <청년과 성평등>, <청년과 평화다양성> 의 5개 분과를 설치하고 각 분과마다 자문위원과 담당 간사 그리고 관련 실무교육을 배치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추진하지 않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연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3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TF라는 구조를 두었다. 물론 이러한 TF팀의 사업이 청년참여연대 공식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차례 절차를 통과해

야하지만, 청년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까지는 최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TF팀의 사업제안에 대한 승인은 전체회원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적인 성격도 띄고 있다.

한편 하나의 공동체, 사회집단으로 서로를 인지하는 과정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소모임을 장려하고 소모임, TF팀, 분과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분기마다 모임을 열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과 공동체 활동은 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두 번째는 지원과 투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전문성과 오랜 시간이라는 비용을 필요로 한다. 만약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러한 지원과 만나지 못한다면 유의미한 변화를 포함한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청년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는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 사업[1)]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혁신활동가[2)]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더욱 발전된 형태인 청년활동보장제도[3)]로 일보 전진을 꿈꾸고 있다. 또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제도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도 비용 부분에 대한 지원,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년참여연대도 사업비를 제외한 기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 참여연대 특성상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 뉴딜일자리사업 : 서울시가 공공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발굴을 연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선발하여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활동과 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재생, 도심형제조업, 주거, 복지, 노동, 민생 등의 각 영역에서 비어있는 새로운 일자리 생성과 자생기반 조성을 선도하는 혁신형 일자리 사업. (출처 : 청년허브 홈페이지)

2) 서울시혁신활동가 : 서울시가 2013년도부터 시작한 뉴딜일자리사업 중의 일환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청년혁신일자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 모집에 참여하여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을 뜻함. (출처 : 청년허브 홈페이지)

3) 청년활동보장제도 : 청년들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사회참여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이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거나 서울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가 특정기간 일정 금액의 청년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출처:청년과 사회를 잇는 정책의 재구성 포럼 책자)

청년에 대한 지원에는 직접적인 비용지원만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 또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각 지원의 주체가 가장 잘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우선적으로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인 아카데미느티나무와의 협조를 통해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평화교육 디자이너>, <공익로비학교> 등의 강좌를 청년참여연대 주요 활동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3. 작은 승리의 경험 공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작은 승리의 경험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를 청년들과 공유하는 일이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계급, 계층의 문제이자, 상대적 약자인 청년을 통해 투영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라도 바꾸어 내고 이러한 경험과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의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이 그 좋은 예이다. 피자 배달 30분제 폐지, 커피숍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생활 속의 작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바꿔내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하고 있는 '소소권' 캠페인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러한 경험들은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개인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고 제도 개선과 보편적인 권리 수호를 위한 행동 하나하나는 청년들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작은 승리의 경험은 언젠가 큰 승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Ⅲ. 마치며

1. 2세대 청년운동, 2세대 시민운동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청년참여연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은 '뭔가 달라야한다'라는 거였다. 과연 무엇이 달라야 할까? 아직도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지만 준비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토론을 하면서 조금은 방향을 잡게 되었다. 참여, 연대, 지속가능성, 다양성, 즐거움은 청년참여연대의 핵심가치이자 운영원리이다. 기존 참여연대의 운영원리인 참여와 연대에, 조금은 낯설거나 어색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 다양성, 즐거움, 지속가능성을 더했다. 이처럼 2세대 운동은 기성세대의 운동을 대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시민, 청년운동의 경계를 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운동방식, 조직구조에 대해서는 확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기성세대, 선배세대에 비해 그 시작은 미약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가능성과 기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그것에 있다.

지금 사회에는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부정적 용어들이 넘치고 있다. 앞으로의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이 N포세대 같은 낙인을 N개의 가능성을 가진 세대로 바꾸는 변화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참

토론 1

“우리가 말한다고 되겠어”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3년의 경험

송효원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장

1. 청년거버넌스 3년,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 주요활동 정리

■ 2012년 1기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제도 도입

- 김영경 청년명예부시장, 15명의 청년암행어사
- 1월 청책토론회, 8월 굿잡토론회, 하반기 4번의 청년정담회

■ 2013년 1월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개관

■ 2013년 1월 서울시, 청년유니온 서울일자리정책협약 체결

■ 2013년 2기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201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조금득 청년명예부시장, 200명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10개의 정책테이블
- 1월 청년聽(청), 8월 서울청정넷발대식, 10월 청책토론회

■ 2013년 10월 서울시 청년일자리기본조례제정 (청년유니온)

■ 2014년-15년 3기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2014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 권지웅 청년명예부시장
- 300명의 2014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14개의 정책분야 300명정책위원, 1,2기 80명의 대학생기자단

- 9월 상상컨퍼런스, 10월 청정넷24hr캠프/대학생기자단MT, 12월 1기대학생기자단 수료식, 15년 7월 2기 대학생기자단수료식, 7월 제 1회 청년의회 개최

■ 2014년 12월 서울시 청년정책과 신설

■ 2014년 12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정 (청년유니온)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전문가, 공무원, 청년, 시의원)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
-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2015년 서울청년의회(청년의원 197명)

- 2015 청년정책 추진 계획 기존 실행과제 개선안 도출
-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 선정

○ 청정넷은 '청년의 삶은 변화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3년 청년들의 시정참여는 ▲청년의 현실을 조명하고 ▲청년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근거와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정책의 입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그간 청정넷의 활동은 청년정책의 의제설정=>의사결정=>집행=>평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시정참여 개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틈새를 청년정책전담팀에서 과의 신설로, 사업의 집행에서 조례 즉 제도의 확립으로 발전시켜온 과정이었다.

○ 오늘날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으로 한 번에 해결 될 수 없는 복잡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수립의 과정은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전환(내용, 기준, 수립 및 평가 과정)이 요구된다. 기존의 틀로 파악되거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장 잘 파악하며 그에 따른 단계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집단은 바로 당사자이다. 기존의 이론과 개념의 체계로 당장 이해되지 않거나 미숙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표현하는 언어와 생각을 중심으로 법과 행정의 기준을 맞추어가는 것이 청년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의 참여형태를 넘어서 청년정책만큼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으로 조금씩 변할 수 있구나'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회복, '협력하고 움직이면 바뀔 수 있다'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의 경험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

○ 청년의회는 8개월간의 청정넷 활동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청년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도였다. '의회'라는 형식을 통해 서울시와 청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시정질의 및 발의라는 형식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의 폭과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고, 제안이 아닌 발의로 '듣고 말하고 답하는' 청년주도의 시정, 일회성이 아닌 매년 구성되고 활동하는 지속성을 지향하였다.

2. 3년의 경험

○ 청정넷의 운영방향을 고민함에 있어 주요하게 보았던 지점은 ▲정책제안이라는 결과를 넘어서 문제를 발견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의 다양성 보장(프로세스 상의 변화) ▲ 청년정책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는 참여 동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운영 체계상의 변화) ▲ 참여자들의 관계와 팀으로서의 관계 형성을 통한 동료를 만드는 과정(운영 원리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위에 언급한 4가지 지점 1) '정책제안을 넘어선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가?' 2)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가 유지되고 강화되고 있는가?' 3) '팀원들이 동료가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고 있는가?' 4) '청년단체 및 오짱(청정넷 팀장)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는가?'가 청정넷의 주요한 평가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 – 청정넷 운영사무국 워크샵 발제문중(`14.11.03)

○ 청정넷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책전문가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학생, 직장인, 취준생, 예술인, 활동가, 공무원들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라는 결과만을 중요시 하다보면 과정이 무거워지고 참여의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책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라는 화두를 던지고, 12개의 팀들이 '작당모의'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각 팀들은 평균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통해 '청년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는 등의 일상의 질문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과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리서치, 당사자 인터뷰, 포럼, 캠페인,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의 질문을 정책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었다.

○ 청정넷의 또 하나의 주요한 목표는 (공공의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연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위한 청년주체양성, 즉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지라퍼' 300명이라는 숫자의 기계적 조합을 넘어서, 이를 연결하고 묶어세우기 위한 코어(청년단체)의 역할을 주요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청정넷의 이후 발전 방향을 논하는데서, 공공의 운영지원을 넘어서 독자적인 청년들의 활동이 네트워킹되고 이것이 사회적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 운영사무국(5명)이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안정화하는 한편, 12개 팀의 팀장(오짱)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1달에 한번씩 진행하였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상시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였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운영사무국 구성원들이 몇 개의 팀을 전담하면서 운영과 사업의 통일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보다, 청년을 지지하는 청년을 만나서 기뻤다."

– "우리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해결하는 지점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제 삶에서 굉장히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움직임들이 원래부터 많았구나."

– "서울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오지라퍼를 하고 나서 '자유롭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채널로서 변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 "일상의 질문이 서울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상상하고 기대하는 시간이었어요." (청년의회, 청정넷 참가자 소감 중)

○ 다양한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 요구도 특성도 다양할 수 밖에 없었다. 활동의 지속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한다. 협동을 잘하는 사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였고 각기 경험도, 요구하는 것도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무엇이라도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과정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공동의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의견의 충돌이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동료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운영상에서는 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각 팀들이 직접 준비하는 월간 공유회, 신년회 등의 사업을 꾸준히 배치하였다. 각각의 팀을 넘어서 활동을 서로에게 설명하고 피드백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어가기 위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소속감,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참

토론 2

청년의 시선으로 시작하는 주거운동

: 새로운 주거문제의 발생과 해결을 위한 노력

정남진 /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1. 민달팽이세대의 출현

한국사회에서 '집'은 가파른 경제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고 투기와 자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약속된 '주거사다리'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주거상향이동으로 이해되었지만, '자가주택 마련'이라는 한국사회의 보이지 않던 신화는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인해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꿈이 되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자산 축적을 통한 자가 소유로의 이행이 불가능해 졌으며, 기존 사회에서 제시한 불안한 '주거 사다리'는 지금의 청년세대에 와서는 완전히 붕괴하였다. 다음 단계로의 이행불가 세대의 출현, 민달팽이 세대의 출현이다. 새로운 문제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접근과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2. 증언하고 관계 맺기

청년 개인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는 다양하다. 높은 임대료, 열악한 주거환경, 집주인과의 마찰, 관리비, 집구하기, 이웃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층위에서 어려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장을 여는 것은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의 출발선이다. 사회적 이슈,

조사연구에서 회원모임 등 일상사업의 이르기까지 사업의 시작은 '오픈테이블' 형식을 통해 고민을 가진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참가한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자신만의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곁에 있는 누군가가 비슷한 경험으로 겪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 삶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맥락으로 해석되며 이야기를 공유한 참가자 간에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오픈테이블을 통해 개인 속에 흩어진 경험들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며, 참가한 사람들 간에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된다.

공공주택·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강제퇴거금지 등은 기존의 주거운동의 뼈대를 이루는 거대한 주제지만, 그 자체로 오래되고 견고한 구조를 형성하여 지금 새롭게 발생하는 주거문제의 약한 고리를 발견하고 공격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 '오픈테이블' 형식을 통해 나오는 당사자의 경험에 기초한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활력을 제공하며, 거대한 제도·정책·담론 중심으로 매몰되지 않는 현실감각을 일깨운다.

3. 조직해서 드러내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처럼 청년 시기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사회에 진입하면서 겪는 임시적인 문제로 한국 사회는 이해해 왔다. 현 시대 청년 당사자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생애 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겪는 문제가 아닌 변화한 한국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사회구조에 의한 문제임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문제를 드러내면서 비로소 청년 주거 '문제'로 인식된 것이다.

살면서 소소하게 겪는 문제, '왜 좁은 원룸의 임대료가 이렇게 비쌀까?' '우리집 관리비가 매달 5만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방값 역전현상', '원룸 관리비' 문제는 사례를 수집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것이 실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더해 비로소 규제가 없는 민간임대시장의 폐해로 '방값 역전현상'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준 없이 부과되는 '원룸 관리비'가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요한 청년주거문제로 인식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당사자, 공감하는 사람, 해결하고 싶은 사람,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논의의 장을 열고 자원을 연계하며 사람과 문제가 조직화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조직된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의제가 되고, 모인 사람들은 민달팽이유니온의 당사자 역량을 강화시킨다.

4.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사례 만들기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주거문제는 기존 제도의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거지원정책의 대상에서의 배제, 기존 정책에 대한 무지, 통제되지 않은 민간 임대시장에서 높은 임대료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좁고 성긴 기존 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청년주거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사례는 매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주거거상담사' 교육과정과 '소셜하우징매니저' 교육과정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역량을 구축하였다. 대학 자치기구·생협·민달팽이유니온이 연세대에서 운영한 '집보샘'은 주거상담·교육·동행서비스·주거지원정책 연계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지원체계에 대한 실험이었다. 남가좌동에 공급한 '달팽이집'은 기존 공공·민간임대 시장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사회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공급과정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출자·공공기금연계·사회적 펀딩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은 입주자 사이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아우르는 공동체복원에 대한 시도였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새로운 시도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를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작지만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복제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다시 제도와 정책에 반영시켜 전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환원된다. '원룸 관리비' 사례는 서울시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로, 달팽이집 사례는 서울시 청년 대상 공공주택 운영관리 모델과 사회주택 지원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여 서울시의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면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 민달팽이유니온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모습이다. 참

토론 3

‘청년유니온 운동’ 5년, 의미와 과제

정준영 /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1. 청년유니온의 현황 : 어디에 와 있는가?

○ 현재 청년유니온은 창립 5주년(‘15.3월)을 경과해 3기 청년유니온(위원장 김민수)에게 주어진 2년의 임기(’14.3월 ~ ‘16. 2월)를 마쳐가는 단계에 있음. 청년유니온에게 2015년은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년을 전망하는 시간이었음.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승소(2015. 1. 29.)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2015. 4. 30.)을 계기로 ‘청년세대 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와 확인하고 노동운동 내의 세대 대표성을 인정받았음. (유형근 2015) 인정투쟁의 기초적인 단계를 매듭지었다고 평함.

○ 2014년 2월, 3기 청년유니온은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기치로 출범했음.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향성에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에 두고 있음.

“*청년유니온은 출발부터가 사업장의 틀과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시민사회 전체를 활동영역으로 삼고, 청년노동 전체를 대변하고자 사회적인 의제와 방법으로 싸워온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이다. (…) 우리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업종·직종 전반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의 문제를 기업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개별 사안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싸워왔다. 지금까지는 청년유니온의 정체성이 시민단체냐 노동조합이냐의 질문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합한 하나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때다." (출처 : 청년유니온 2014년 사업계획 총론)

○ 2015년 10월 현재 청년유니온의 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청년유니온의 조직 현황 (2015년 10월 기준)

항목		현황
결성시점		2010년 3월
조직형태		지역 일반노조 (전국)
설립신고		2012년 3월 (서울지부) 2013년 4월 (전국)
사무소 소재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조합원 자격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누구나 (구직자 · 실업자 포함)
조합비		월급의 1% 권고. 단, 최소금액은 당해 법정 최저임금의 시급
조합원수	결성시점	42명 ('10.3월)
	'15. 10월	1,104명 ('14. 7월 891명, 213명 순증)
후원회원 수		486명 (지역지정후원회원 180명)
조합비 납부율		약 65%
조합비(후원회비) 수입		월 평균 10백만 원 (지역교부금 지출 3백만 원, 전체의 30% 수준)
상근자 수		(본부) 6명 (경기) 반상근 1명, (부산) 반상근 1명, (대구) 반상근 2명 (청소년) 반상근 1명
선출직 임원		위원장, 사무처장
임원의 임기		2년 (중임 가능)
현 집행부		3기 ('14. 2월부터)
집행체계		3국 4팀 정책국, 조직국, 노동상담국 사건대응팀, 노동인권교육팀, 청소년사업팀, 대학생팀
대의원제도		20명당 1명 선출, 지역/부문 할당 : 현재 전국 대의원 71명
지부/분회		9개 지부 설립 : 광역시도 단위
상급단체		없음

※ 자료 : 유형근(2014)에서 재인용하여 현재 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함

2. 청년유니온의 탄생과 주요 활동 경과 : 무엇을 해 왔는가?

○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43명의 조합원으로 2010년 3월에 창립함.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을 지향하며 청년의 구체적 삶과 목소리에서 출발해 당사자 스스로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 청년유니온의 등장은 200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확대된 '주변부 노동'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회체제의 결과임. 그것은 중심부의 성곽 외부에 있는 '노동운동 바깥의 노동'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노동의 테두리 밖에서 시작된 대안적 실천임. 올해에 들어 청년유니온은 이를 '2세대 노동운동'이라 지칭하기 시작함. (김민수 2015)

○ 청년유니온의 창립선언문(2010. 3. 13.)은 임시직, 아르바이트, 인턴으로 대표되는 청년노동의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자기 본연의 과제로 삼으며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강력한 당사자주의를 밝힘. 또한 청년유니온이 청년들의 정치사회적·문화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며 청년들의 연대와 단결을 추구한다고 선언함.

"*오늘 청년유니온의 창립은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첫 번째 조직적인 저항이자 스스로의 연대와 단결의 시작이다.*" (청년유니온 창립선언문)

○ 청년유니온이 표방하는 '당사자주의'는 이해대변의 '대상'과 '주체'를 분리하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 조직하는(self-organizing) 운동의 원리를 뜻함. 그것의 조직적 실체가 바로 '유니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노동조합[결사체]임.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유니온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음.

[표 2] 청년유니온의 주요 활동 (2010~15)

기수	연도	주요 활동
1기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영경)	2010년	■ 창립 (2010. 3. 13.) ■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 최저임금 청년 가계부 실태조사 ■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 입법행동
	2011년	■ 피자업계 30분 배달제 폐지 캠페인 ■ 커피전문점 유급휴일수당 미지급실태 고발 캠페인 ■ 병원실습생 권리보장 실태조사 (2012. 2. 발표)
2기 청년유니온 (위원장 한지혜)	2012년	■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 ■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 진행 ■ 대선 투표시간 연장 운동
	2013년	■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협약 조인(2013. 1. 28.) ■ 미용실 스텝 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캠페인 ■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 교부(2013. 4. 30.) ■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구성·운영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 거리축제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공동발표 ■ 취업준비생의 역습 캠페인 (토익시험 불공정행위 고발)
3기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2014년	■ 서울지역 학원 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 광역단체장 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전국 6개 도시) ■ 대학생 산학협력 현장실습 실태조사 ■ 아르바이트 청년 감정노동 실태조사 ■ 청소년 호텔·연회장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참여 ■ 한국판 블랙기업 운동 시작 (연구조사) ■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정 활동 (조례안 작성)
	2015년 (현재)	■ 패션업계 청년착취대상 : 열정페이 문제 대응 노사공동선언 및 문제해결을 위한 3자 협의회 구성 ■ 「한국형 블랙기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수행 ■ 「청년 과도기 노동의 실태와 대안」 연구 수행 ■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청년위원) ■ 최저임금위원회 참석 (노동자위원) ■ 최저임금 사업단 및 전국 순회 캠페인 ■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참여 ■ 2015 서울청년의회 · 청년주간 참여 ■ 청년일자리 해법 긴급 토론회 (9월) ■ 청년일자리 개혁과제 10대 요구안 노사정위 전달 ■ 서비스부문 청년착취대상 : 롯데그룹 청년노동 문제 ■ <로티> 롯데 회장선거 후보 출마 및 선거운동 캠페인

3. 청년유니온에 대한 평가 : 무엇을 남겼는가?

○ 청년유니온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전통적인 청년·학생운동이나 기존 노동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시도'로서의 운동적 의미에 주목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조합원의 참여수준 등 조직사업의 역량에 대한

부족함과 노동조합으로서 ‘구조적[단결적] 힘’의 결핍이 지적되고 있음.

[표 3] 청년유니온에 대한 평가

평가주체	주요 내용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청년유니온 조직자들이 운동을 조직하게 된 동인과 추진력은, 그들이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실제 생활경험으로부터 나온 자신과 동료들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의 운동은 실제적이고 또 실용적” “사업장에 기반을 둔 기존의 경직적 조직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공간을 활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형태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래에는 조직하기 어려운 광범한 하급 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 “청년유니온 같은 세대노조의 발전은 민주주의에서 대표의 직접성을 확대하고, 정당으로 하여금 그들이 공약한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해 책임성을 갖게 하는 역할”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의 권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게 하는,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청년유니온의 기여가 결정적일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들은 정치참여에 있어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고, 매우 유연하고 현실적이었다. 이념적 성향에서 다원적이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실정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들은 환상에 빠져 있지 않았고 철저하게 실제의 현실과 대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절제된 태도야말로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한 덕목”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상임이사)	■ 청년유니온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혁신적 발상의 결과 -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해법과 새로운 유형의 조직화와 작동방식의 개발 △ 가장 절실한 사회적 필요 △ 기존 해법과는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 △ 실제 그 아이디어의 실행 ■ 문제영역 범위, 운동방식, 비전과 목표,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부단히 자기 진화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 ■ 조합원 참여라는 측면에서 미뤄왔던 혁신을 다시 도전할 필요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 청년유니온 전 정책기획팀장)	■ 사회에서 가장 배제되어 있는 갈등인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현실을 드러내고 실제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정치 등에 영향 ■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이 포괄하지 못한 집단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을 창출 ■ ‘유니온’ 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방식과 경향을 형성. 민달팽이유니온, 노년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으로 확대 ■ 조직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제도 안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갔다는 측면에서 ‘유사정당’ 역할을 수행 ■ 다양한 세대, 계급, 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사회 비전도 고민해야 할 시점 ■ 앞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과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제기해나가는 역할이 필요함

평가주체	주요 내용
유형근 (이화여대 고진로사회권연구소 연구교수)	■ 청년문제의 핵심은 노동문제라는 인식 하에 '노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당사자 조직으로 자기-호명하여 청년들의 노동권을 사회적으로 환기 ■ 청년 불안정노동자들 특유의 산업 및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산업적 저항 행동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공론장의 힘'을 동원하여 운동적 성과를 낳음 ■ 캠페인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부족한 내부 자원의 한계 극복 ■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연합을 폭넓게 도모 ■ 노동조합 제도를 통한 이해대변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의 이해대변 운동을 개척 ■ 이해대변의 공백지대에 존재하는 불안정노동자의 이해대변과 관련해 노동운동의 장을 확장하고 쇄신할 수 있는 실험적 시도

4. 향후 전망과 과제 : 무엇을 할 것인가?

○ 청년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며 당사자조직인 청년유니온의 입으로 더 많은 관심이 모였으나, 정작 청년은 고통 받는 당사자로 소비될 뿐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발언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임.

○ '노동개혁 대 재벌개혁'이 충돌하는 책임공방의 평행선 끝에 개혁의 명분으로 제시된 청년일자리 문제가 논의되는 장은 오히려 협소해지고 있음. 노사정 협상의 내용과 결과 모두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해 말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대변함으로써 정부가 조장하는 세대 · 노동자 간 갈등구도에서 벗어나 세대 · 노동자 간 연대를 회복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례에서 청년노동의 제도 참여 전략의 확대·발전 가능성과 새로운 노동자 연대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함. <새로운 주체의 최저임금 운동> → <의사결정의 제도적 권한 획득> → <운동의 확대> → <주체역량의 성장>이 선순환하여 '제도'와 '운동'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운동’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고용보험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처럼 청년노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교섭에 청년노동의 목소리(voice)를 반영하기 위한 실천을 확대해야 함. 청년 불안정노동자의 이해대변 방식에서 제도적 수단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되 그것을 뒷받침할 ‘조직된 힘’과 정책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최초에 의제를 확장하는 수준에서 주체를 형성하고 운동을 기획하는 것, 종국에 제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는 전략의 수립이 향후 과제로 제기됨.

“*사실 10년 전에만 해도 나는 지금의 이 시점에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유니온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젊음', '미래',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는 청년이라는 허울 좋은 호명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도 못했고, '청년이 (더 큰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을) 나서서 해야 한다'는 말에 냉소하는 편이었다. 나는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생각하던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음을 경험한다. 최저임금협상을 통해서 느꼈듯이,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느낀다.*” (최저임금 사업단 조합원 후기A)

“*2015년 최저임금 회의장을 통해 많은 가능성을 이끌어내었고 함께 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를 온전히 목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날 마음을 함께한 모든 분들의 수고로움과 진정성은 ‘6030’이라는 숫자에 갇힐 수 없다.*” (최저임금 사업단 조합원 후기B)

○ 2015년, 3기 청년유니온이 임기를 마무리하며 6년의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청년유니온 운동모델’의 전형은 마련되었음. 특히 의제의 수준에서 ‘청년’의 노동·고용 의제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포괄하기 시작했고, <생애 첫 노동 아르바이트(노동보호) - 구직자 권리(채용제도) - 과도기 노동(인턴·실습) - 블랙기업(신입사원)>이라는 노동생애 이행단계별 의제 전략이 수립되었음. 의제 분야에 있어서도 직업훈련·공공고용서비스,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사회보장제도, 노동시간 등 새로운 분야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

○ 문제는 각각을 다루는 내용의 질을 담보할 역량의 확보에 있음. 또한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나 조직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하나의 전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의 최선[최상]'을 뜻하며, 이는 조직의 관성과 경직성으로 이어지기 쉬움. 개별 기능의 전문성 강화는 관료화를 낳아 전체 조직을 소수의 '활동가'와 대다수의 '후원자'로 양분함으로써 조직 역량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가 우려되기도 함. 사회운동의 위기 속에서 운동주체의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기존의 모델을 극복하고 또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끊임없는 내부 혁신이 요구됨. 청년유니온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듯 조합원의 참여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직운동'의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단계임. '거침없는' 조직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물적 기반과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적임.

○ 청년담론의 유행 효과로 청년유니온의 사회적 지위 또한 '겉보기에는' 충분히 의미 있게 높아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런 '호출'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임. 실속 없는 거품은 꺼지기 마련임.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실체 있는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확산해야 함. 청년유니온이 그간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작은 승리와 성과들을 남겨나가야 함. '생애 첫 노동조합'으로서 청년들의 삶에 다가갈 존재근거를 다시 한 번 찾아야 함. 그것이 '노동개악'의 시대, 비참한 노동의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마지막(혹은 진짜) 안전망·버팀목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는 길임.

○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했던 이들로부터 '유니온 운동'의 가능성을 더 열어야 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국회인턴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로부터 소외·배제되었던 광장 밖의 시민들, 노동운동 밖의 노동자들, 사회 밖 약자들이 '유니온'을 통해 결사하기 시작했음. 앞으로 이는 더 확장될 수 있음. 노동조합운동에서 가로막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전국적 연대'의 가능성이 '유니온'에 내재해 있지 않을까 함. 결사체의 결사체(Union of Union)로 나아가는 것, "만국의 유니온이여, 단결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때를 상상해봄. 참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발행일 2015. 11. 4.
발행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청년참여연대
담 당 이기찬, 이정민 간사 02-6712-5248 ips@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5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